

회의록

회의일시	2022. 12. 26.(월) 13:00~13:30	부서	기획처	장소	대회의실
참석자	○ 위원장 : 유대현(기획처장) ○ 위 원 : 김건홍(대학원 원우회장), 김만길(직원노조 지부장), 김효건(외부전문가), 이동현(부총학생회장), 정승희(총학생회장) [가나다 順]				
회의명	2022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				
의안	1. 2023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				

■ 유대현 위원장의 개회선원과 성원보고로 회의를 시작함

[안건1] 2023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

회의내용 및 합의사항

- 유대현 위원장은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이규현 기획혁신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함.
- 이규현 기획혁신팀장은 우리대학은 10여년 이상 등록금을 인하 및 동결해오고 있으며 입학정원 감소 등으로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등록금 외 수입 확대 및 경비절감 등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을 설명함. 2023학년도에는 학부 입학금을 폐지하고 학부 수업료 및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되, 학부 입학금 폐지와 관련한 교육부 정책(2017학년도 입학금의 20%를 2023학년도 등록금에 산입하고 해당금액을 국가장학금II 유형으로 학생에게 지급)을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반영하고자 함을 설명함.
- 정승희 위원은 국가장학금II 유형 지원액이 책정되는만큼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있기를 요청함.
- 김효건 위원은 10여년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축소·폐지는 많은 대학들의 재정에 큰 타격이며 장기적으로는 재투자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함. 교육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학 자체의 자구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교수, 직원 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도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설명함.
- 김만길 위원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II 유형 지원액에 대해 물음.
- 홍성현 간사는 정원내 신입생 566명 기준 약 1억여원임을 설명함.
- 유대현 위원장은 2023학년도 학부 및 등록금 책정안의 심의·의결을 제안함.
- 참석 위원 모두 원안에 동의함.

■ 유대현 위원장의 폐회 선언으로 회의를 마침.

- 붙임 : 1. 회의참석 서명지 1부.
2. 회의자료 1부. 끝.

